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5)

非獨我曹罪

비 독 아 조 죄

우리 죄뿐만 아니다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새해가 밝았다. 긴 팬데믹 시기를 넘기고 3년 차인데 4월에는 총선이 있으니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될 거다.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사람이 모름지기 정원 300명의 5배에서 10배는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무엇일까? 보지 않아도 뻔하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되었으나 자기들이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할 것이고,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일을 못 하겠으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싸울라고 할 것이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도 야도 아닌 중간에서 조절하는 힘을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냉혹한 전쟁 상황만 있을 뿐이다. 싸우고 경쟁하더라도 금도(襟度)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한 해의 정치권에서 나온 행태를 보면 이성적(理性的)인 대화나 언론은 없었던 것 같았다. 비이성적(非理性的)인 작태(作態)가 범람(氾濫)하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이성적인 작태는 양쪽을 다 망하게 하였을 뿐 승리자는 없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작태 가운데 우리 역사에서는 임란(壬亂)과 관련하여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은 잘 알려진 것인지만, 더 커다란 예를 든다면 400년을 이어온 한왕조(漢王朝)가 무너지고 삼국(三國)의 분열이다. 그 뒤에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으로 이어지는 400년간의 분열 시대가 펼쳐졌으니 후한(後漢) 말 작태의 해독은 참으로 크다.

후한 말은 어느 왕조(王朝)의 말기처럼 부패가 만연하여 환관(宦官)이 발호(假號)하였다. 환관이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궁궐에서 심부름 할 사람이 필요하여 둔 환관이 이렇게 기세를 부리자, 그들은 부패의 근원이고 혼란의 책임은 모두 환관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태학생(太學生)들이 청의(淸議) 운동을 펼쳤지만, 도리어 금고(禁錮)되고 죄겨났다.

사실 후한 말에 환관을 제압할 기회는 있었지만 실패한 것뿐이다. 영제(靈帝)가 죽고 영제의 하황후(何皇后)가 태후가 되어서 그 오라버니 하진(何進)을 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아 후임 황제를 선정하고 정

사를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임 황제를 선발하고 정사를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장군이라면 군사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환관 세력을 끊어내는 것쯤이야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다. 자기 힘으로 이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은 원소(袁紹)는 하진에게 환관을 다 쫓아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뒤에서 재촉하였는데, 하진도 환관의 해독은 짐작하고 있어서 되도록 원소의 말을 따르고자 하였다. 하진은 20여 세인 누이동생 하태후에게 가서 환관을 다 내쫓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하태후는 망설였다. 그렇게 한다면 환관이 없으니 수령청정(垂簾聽政)하는 젊은 태후가 정사를 맡은 관원과 직접 대면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환관제도는 그 나름대로 필요하여 둔 것인데 이를 없애는 것도 옳지 않게 생각되었다. 젊지만 하태후의 생각이 오히려 이성적이었다.

그러나 환관을 다 없애고 싶은 원소는 전국에서 호걸과 맹장(猛將)을 불러 모았다. 이들의 무력을 가지고 하태후와 환관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본 조조(曹操)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환관의 우두머리 몇 명만 처단하면 될 일을, 환관을 다 내쫓으려 하니 소문이 새 나가서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조조의 말대로 환관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한두 명을 범으로 처단하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꼬리를 내릴 일이었다. 그런데 굳이 환관을 다 내쫓으려고 하더니 끝내 서부지역의 군사 강자인 동탁(董卓)까지 불러들여려고 하였다.

하진은 환관들을 불러서 '군사들이 낙양으로 속속 들어오니 빨리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였다. 환관의 우두머리 장양(張讓)은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하더니 그날 밤 궁궐에서 하태후를 만나고 나오는 하진을 불러 세우고 말하였다. '지금 천하가 융통하게 된 것은 우리들만의 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상방검(尚方劍)으로 하진의 목을 베게 하였다. 환관은 죄를 지었지만 모두 다 죽을죄를 진 것은 아닌데, 죄 없는 사람까지 죄아내려 한 것에 대한 항의이며 양갈을 이었다. 환관이 맙다고 하여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감정으

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그르친 것이다.

사실 이렇게 환관을 다 죽이려다 실패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환제(桓帝)가 죽고 그 황후 두씨(竇氏)가 황태후가 되어 그 아버지 두무(竇武)를 대장군으로 삼고 영제(靈帝)를 데려다 황제로 세우고 두무에게 정사를 맡기니 청렴한 진번(陳蕃)과 함께 새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일이 그 앞에도 있었다. 두무는 계획을 세우고 내일 아침에 환관을 다 죽이자고 딸인 두황후에게 상주문을 전하게 하고 나왔다.

이 문서를 전달하는 환관이 살짝 그 내용을 보고 불만이었다. '죄지는 사람�이야 죽여도 좋지만, 죄 없는 사람이라도 환관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즉시 환관들은 모여서 칼을 들고 '두무가 황제를 바꾸려는 반역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번을 죽이니 두무는 자살해야 했다.

진번같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청렴한 사람도 두무와 함께 비이성적으로 하다 일을 그르친 것이다. 환관이 아무리 죄를 짓고 미워도 환관이 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환관을 처리하는 방법도 이성적이어야 했지만 감정을 앞세웠다가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는 하진이나 두무 혹은 진번이나 원소 같은 개인의 실패로 끝난 일은 아니다. 왕조를 무너지게 하고 길고 긴 전쟁과 혼란, 분열 속으로 밀어 넣은 죄를 지은 것이다. 진번이나 원소가 개인으로 깨끗하였다고 해도 두무나 하진에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죄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하진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고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조조(曹操)는 난국(難局) 속에서 중심을 잡아갔고, 그의 아들 조비(曹丕)는 한(漢)의 현제(獻帝)에게 선양을 받고 위(魏)를 건설한다. 난세 속에서도 사태의 주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조조의 이성(理性)이 빛난 샘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에 빠져 있는 정치 상황에서 조조처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세(判勢)를 정확히 읽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상대가 아무리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되어도 전부 나쁜 것은 아니니 옥석(玉石)을 구분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의 희망이다.

2023 안동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안동권씨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태형) 주최 "2023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5일 저녁 6시 30분 안동시 육사로 205 토마토(구, 만남의 광장) 지하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광택 경북도 의원, 권용수 건국대 교수, 권오직 신임 능우회 회장, 권태형 능곡회 회장,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능우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창 안동시장 부인과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은 행사 전에 참석, 바쁜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났다. 안동지방은 지난 14, 15일 이를 동안 여름비처럼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원로원 회원과 능곡회 및 능우회원들이 예년의 절 반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우경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1부 행사는 권오성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 감사폐 전달, 회장 인사, 죽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태형 능곡회장은 권오직 능우회장에게 능우회원들에게 양말 두 켤레씩을 전해 달라며 양말을 일괄 전달했으며 또 능곡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한 권영호 능우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폐와 꽃다발을, 능곡회원 간의 유대 강화와 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권은달, 권용진, 권기재 등 3명에게 우수회원 폐와 꽃다발을, 이밖에 단결된 모습으로 타 분과에 모범이 된 2, 3, 4분과에 분과 상과 부상으로 상금 2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 자리에서 신입회원 권기진(부호장공파, 경북독립운동 기념관 과장), 권중기(복야공파, SK쉴더스 영업소장) 등 2명을 능곡회에 입회시키고 권태형 회장과 권오성 운영위원장은 이들에게 회원증, 배지(badge), 꽃다발을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권태형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이 송년의 밤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한 뒤 "제33회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가 내년 5월 4일 능곡회 주최 안동에서 개최하는데 회원들이 단합하고 지혜로운 힘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리"고 부탁했다.

권오직 능우회장은 죽사에서 "능곡회원이 일사분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 든든하고 권문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내년 전국체육대회는 분명히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장담했다.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은 죽사에서 "안동권씨를 지탱하는 15개 파종회, 전국종친회, 안동종친회 등 세 죽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죽이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심각한 상태가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시내 송현동 송야 다리에서 시내 서후면 봉정사 길까지 약 10km 거리를 '천년불파의 길'을 만들기 위해 이문열 작가와 허영만 화가 등을 초청, 스토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 5월 4일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안동에서 개최하는데 그때는 안동권씨는 물론, 안동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태형 회장

권광택 도의원은 죽사에서 "능동재사 보수사업이 잘 해결될 때까지 심부름을 하겠으며 앞으로 권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안동 능곡회의 눈부신 활동이 안동 중심의 윤동력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안동지역 발전을 위해 오늘 출사표를 던져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권영훈 전국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은 "내년 전국체육대회 규모가 웅장하고 안동시민운동장에 관중이 꽉 차도록 하자면 어깨가 무겁다"고 포부를 털어놓았다.

안동 능곡회 주최로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은 제1회(1989년 5월 3일)와 제13회(2001년 4월 29일)에 이어 이번 제33회(2024년 5월 4일)로 세 번째이다.

죽사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행사장에 마련된 원탁 테이블에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뷔페 식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답을 나누었다. 권태형 능곡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씩을, 능우회원에겐 타월 1장씩과 양말 두 켤레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한편 현재 능곡회원은 110명, 능우회원은 34명이 있다.

〈권영건 보도부장〉

謹 賀 新 年

존경하옵는 안동권씨 100만 족친 여러분, 15개 파종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전국 60여개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전국 34개 전국청장년회장협의회 회장단 회장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족친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값진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명달

사무국장 권용목

지 역	회 장	사무국장	지 역	회 장	사무국장	지 역	회 장	사무국장	지 역	회 장	사무국장
강릉	권혁렬	권영상	봉화	권영만	권오서	예천	권오완	권의영	청주	권광택	권혁만
경산	권경수	권영승	부산	권부현	권덕림	울산	권명달	권응목	태안	권용구	권수웅
경주	권기혁	권오출	산청	권병국	권희성	원주	권순구	권용덕	합천	권유상	권영식
광주	권찬익	권혁환	서울	권정호	권영일	의성	권인섭	권미란			
구미	권영삼	권용범	안동능곡	권태형	권우경	음성	권병택	권오문			
담양	권공식	권창만	안양	권순보	권동준	제천	공 석	권영인			
대구	권오훈	권준현	영덕	권신기	권영태	진천	권정옥	권순성			
대전	권지원	권선교	영주	권오현	권용일	창원	권영민	권중수			
문경	권상인	권우덕	영천	권혁진	권영운	청송	권오경	권영호			

安東權氏 全國青壯年會長協議會 會長 權명달